

대만, 기도보다 봉사에서 佛法 찾기 '열풍'

인도주의 불교 확산...

"기도보다 소외이웃 돕기 나설 것"

대만의 샤오(Hsiao·63) 씨는 정년퇴직 한 신심 깊은 여성 불자다. 그런데 그녀는 퇴직 이후 사찰에서 기도하기 보다는 추 치 재단의 재활용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도 보다는 실천에서 더욱 분명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대만 불자들의 '신심 경향'을 분석한 BBC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샤오 씨의 말을 인용, "대만 불자들이 재활용센터 등 봉사 현장에서 불우 이웃을 돕는 데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대만 불자들은 타인을 내 몸처럼 아끼는 과정에서 불법의 진리를 찾는 '인도주의 불교(Humanistic Buddhism)'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같다"고 평가한 BBC는 "이러한 경향이 향후 대만 불교계를 선도하는 신행 주류로 나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불자들의 변화는 장례식장에서도 나타난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예전처럼 과도하게 지전과 향을 태우지 않는다. 만약 그런 불자가 있다면,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인도주의 불교'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아끼듯 다른 사람도 아끼야 한다'는 것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강조한 신 바오(Hsin Bao·Fo Guang Shan) 스님은 "대만 불교계에서 '보다 많은 사람을 돕는 게 자신의 고(苦)를 벗는 길'이라는 생각이 전례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① 대만의 불교단체들이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대만의 정년퇴직자 불자들이 추 치 재단(Tzu Chi Foundation)의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 ② 불광산에서 마련한 합동결혼식 모습. '생할 속의 불교'를 강조하는 불광산은 가정을 신행의 터전으로 삼고자 '합동결혼식'을 진행하는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③ "불교란 기도하는 게 아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샤오(Hsiao·63) 씨. 그녀는 매일 추 치 재단(Tzu Chi Foundation)의 재활용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① 대만의 불교단체들이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대만의 정년퇴직자 불자들이 추 치 재단(Tzu Chi Foundation)의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 ② 불광산에서 마련한 합동결혼식 모습. '생할 속의 불교'를 강조하는 불광산은 가정을 신행의 터전으로 삼고자 '합동결혼식'을 진행하는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③ "불교란 기도하는 게 아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샤오(Hsiao·63) 씨. 그녀는 매일 추 치 재단(Tzu Chi Foundation)의 재활용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BBC, 대만 신심경향 분석

환경보호·타인배려 하는

부처님 가르침 실천 나서며

대만불교 파급력 해외에서 높아져

추 치 재단의 경우, 10여 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불교 재단의 단복인 파란색 셔츠와 흰색 바지를 입고 도심 곳곳에서 플라스틱 병을 모으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플라스틱 병은 재활용 공장에 파는 데 수익금 전부 독거노인, 불우이웃, 결손가정, 이재민 등을 돕는 데 사용된다.

또 다른 영향력 있는 불교 단체인 달마드럼 마운틴(Dharma Drum Mountain)의 경우, '불교 101(Buddhism 101)'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만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시험하는 데 해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양 페이

(Yang Pei) 법사는 "최근까지 약 200여 명의 국내외 불교심리학자와 불교철학자들이 초청되어 정종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과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불광산(Fo Guang Shan)의 경우 성장이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쿠오 쉹 티안(Kuo Cheng-tia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교수는 "이 캠프에서는 스님의 삶보다는 재가자의 삶의 중요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불광산은 재가자들이 연민과 자선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BC는 "대만 불교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전제하고, 추 치 재단을 예로 들어 "세계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불교 재단이 태풍으로 집을 잃은 필리핀 5만 가구의 재건축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84개 나라의 불우이웃을 돕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며 "이는 대만 불교를 '인도주의 불교'로 부르기 위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추 치 재단에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200만여 회원을 포함해 현재 약 700만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광산의 경우, 유럽 지역에 20개, 미주 지역에 24개 사원을 비롯해 국내에서 200여 개 사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달마드럼 마운틴은 세계 125개의 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만 10만여 회원이 늘어날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샤오(Hsiao·63) 씨는 "그러나 '마음의 매듭'이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특히 어려운 이웃의 마음에 있는 '매듭'이었다"고 주목하고, "정년퇴임 후 자녀들과의 경제적 갈등, 여기에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이 겹쳐 무척 힘들었는데, 재활용센터 자원봉사에 열중하면서, 서서히 풀이갈 수 있었다"며 "나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이 다르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게 자신의 고통을 푸는 열쇠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잠파 스님, 美 순회강연 열어

첫번째 순회강연 열린 록 아일랜드...300여 대중 동참



미국 일리노이주와 아이오와 주에서 순회강연을 펼치는 잠파 스님.

미국인 스님이 일리노이 주와 아이오와 주의 4개 도시에서 '명상'을 주제로 순회강연을 시작해 주목된다.

〈카드 타임즈(Quad-Times)〉지가 "동부 지역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겐 켈상 잠파(Gen Kelsang Jampa·Kadampa Meditation Center·텍사스)" 스님이 지난 3일 일리노이 주의 록 아일랜드(Rock Island)를 시작으로 일리노이 주와 아이오와 주의 4개 도시에서 순회강연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잠파 스님의 순회강연은 일리노이 주의 몰라인(Moline), 록 아일랜드(Rock Island)와 아이오와 주의 데븐포트(Davenport), 벤틀폴드(Bettendorf) 등 일명 '카드 시티(Quad-City)'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카드 타임즈〉지에 따르면, 지난 2일 카드 시티 식물원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남짓 진행된 잠파 스님의 순회강연에는 300여 명의 대중들이 참석할 정도로 지역 불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바쁜 것은 미덕이 아니다'를 주제로 대중 강연을 시작한 잠파 스님은 카드 시티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기인 '슈퍼볼' 경기를 빗대기도 하고 유머를 던지기도 하며, 카드 시티 시민들의 '담담 마음'을 여는 한편 명상을 체험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바쁜 것은 미덕이 아니다'라는 주제에 대해 카드 시티의 한 시민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 쫓기는 것은 모두 살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고, 잠파 스님은 "우리의 큰 문제는 휴식조차도 마치 경주를 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데 있다"며 "우리들이 만약 야생 코끼리나 같은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잠파 스님은 "마음 챙김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 부처님의 혜안이 담긴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담담해질 마음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도 싹쓸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미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잠파 스님의 책만 10여 권을 읽었다"는 에린노르 디스메트(Eleanore DeSmet) 씨는 "불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중 강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며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잠파 스님의 강연은 마음의 문을 열고, 불법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타임즈〉지는 "이번 순회강연은 명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한껏 고조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록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순회강연은 오는 5월까지 카드 시티에서 10여 차례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 12C 막부시대 부처님상 발견

가슴에 수정장식 희소성 높아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손바닥 크기의 부처님 상이 일본에서 발견됐다.

2월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발견된 아담한 크기의 부처님 상은 카마쿠라 막부 시대(1192~1333)것으로 추정되며 12.8cm 길이로 어른 손보다 작은 크기다.

석가모니 열반 당시를 표현한 외상으로 가슴에 수정이 박혀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짝이는 수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태까지 부처님 상에 표현된 수정은, 손끝, 이마 등에 쓰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크기 또한 길이 2cm, 너비 1cm

에 지나지 않았다.

열반상은 일본 오츠시 정토종 사찰인 신지온인(新知恩院) 창고에서 발견되었으며, 오동나무함에 보관되어 있었다. 함 뒤편에는 절대 장소를 옮기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일반적이지 않은 크기와 귀한 수정이 박혀있는 것으로 보아 불상의 소유주에 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정토종 개조인 호넨(法然, 1133~1212) 스님의 개인 소유물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열반상은 당시 불상제작의 거장으로 꼽혔던 카이케이(快慶, ?~?) 스님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된다. 카이케이 스님은 운케이



12.8cm 길이의 어른 손보다 작은 부처님 열반상이 일본 정토종 사찰에서 발견되었다(사진 왼쪽). 이번에 발견된 열반상은 부처님 가슴에 수정이 박혀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사진 오른쪽).



이 2명의 불사(佛師)와 함께 75일 만에 완성했다.

(運慶, ?~1223) 스님과 함께 일본 나라시도다이지사(東大寺)에 있는 8.5m높이의 금강역사상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1203년 조성된 금강역사상은 생동감과 역동성이 살아있는 목조 조각상으로, 두 스님

이 2명의 불사(佛師)와 함께 75일 만에 완성했다.

이번에 발견된 열반상은 오츠시 역사박물관에서 2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일반인에 공개된다.

배현진 기자

'찬불가' 때문에 호텔 투숙객과 마찰

'불교 찬가' 라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 소음이 될 수 있다. 미국 케이블방송 FOX29는 7일 "뉴욕 한 호텔에서 불교 찬가를 열창하던 팡스타 보이 조지(Boy George)가 호텔 투숙객들과 마찰을 이뤘다"고 전했다.

1980년대부터 자신의 직선적인 성품을 다스리고 약물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명상 실수를 해왔던 보이 조지는 "2012년 티베트 불교로 개종한다"고 주변에 밝힌 바 있다.



팡스타 보이조지

FOX29는 보이 조지와 마찰을 일으킨 투숙객의 말을 인용, "그의 불교 찬가는 가수의 노래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거슬리는 소리였다."고 전하고, "공공 장소에서는 명상을 하듯이 불교 찬가를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2014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6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 1기에서 제5기까지 전국에서 7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4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4년 3월 4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성 지 관 음 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
전화 : 031)768-8414~6 팩스 : 031)768-8413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중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행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문(대불이문),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제,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문, 종사영반, 점의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범은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4년 3월 6일(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북성리 1095) 대한불교영광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 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은 부종으로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성 등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질식사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